

# 李 建設部次官에게

Post a Letter of the Vice Minister of Construction

安秉義 / (주)金重業 종합건축사사무소

by Ahn, Byong - Eui

나는 무척 한가한 때면 공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이 버릇이 때로는 지나쳐 몽상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망상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답니다.

며칠전에는 이런 망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건설부장관이 된다면 기자회견때 뭐라고  
할까.」하고...

지금으로부터 7,8년전 어느 건축잡지에 “건축설계와  
연관되는 여러가지 모순된 법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법도 법이니까 하면서 법에 따라 태연히 죽음을  
택했던 소크라테스의 준법정신과 관용의 미덕을 우리들은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수필이 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분통이 폭발해 만약 내가  
건설부장관이라도 되는 날이 온다면 취임 첫마디는 「여러  
중지를 모아 모순된 관련 법규와 시행령을 모두 뜯어  
고치겠다.」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망상을 몇번이나 했는지 모릅니다.  
오랜 세월, 개각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는 혹시나 그럴듯한  
건축가가 장관이 되어 건축계의 부조리를 말끔히  
씻어주지나 않을까하고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T.V에서 이차관의 취임소식을 접하고  
한마디로 반가웠습니다. 그 반가움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당신과 나의 오랜 세월애 걸친, 그러나 별로 깊지도 않은  
사연들을 이야기 하면서 밤이 지새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몽상에 망상을 거듭하는 내 마음을 어여뻐 여긴  
하늘의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이차관님!

사실 그동안 우리 건축계의 부조리의 골이 얼마나 깊게  
패여 있었습니까. 그 깊은 골을 상세히 파헤쳐 보면  
건축법규 책보다도 많은 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이 썩어가기 시작한 것은 제3공화국때 부터였다고  
기억됩니다.

최근 건설부는 그 산하에 있는 건축사협회를 좌지우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번째 칼을 휘두른 것이 건축사  
합동사무소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만든 대의명분이 이제는  
완전히 왜곡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글썄, 합동의 경우  
설계사무소에 자기 이름을 못걸게 한 것입니다.

해방전, 일본사람들이 우리들의 성(姓)을 빼앗았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곧 출세하여  
이름을 내는 것이라고 나는 어렸을때 배웠는데 말입니다.

이 합동의 제도는 얼마 안가서 다시 종합, 단독으로  
바뀌었지만, 그게 그것 아닙니까?

이 법은 애당초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아로 태어난 것입니다.

설계사무소는 세사람 이상의 건축사가 하나의 사무소를  
종합으로 처리거나 또는 혼자서 처리되, 사무실은  
상업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하되, 보조원을 최소한 두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단독과 종합은 설계할  
수 있는 크기를 각각 구분시켜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단독은  
작은 건물을 종합은 큰 건물을.

이러한 조건들이 어찌하여 설계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이 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건축사 마음대로 하면 뭐 덧납니까.

건설부는 건축사협회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기는  
합니다만, 제3공화국때처럼 너무 좌지우지하여 우리  
건축사들을 못살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제까지는 한마디로 건축사협회는 건설부의  
시녀였습니다. 예를 들면 협회장이 건설부를 방문해도  
국장급 이하 관료를 만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총 4,916명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그 중 257명이 합격하여 약 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자격시험의 약 4배나 됩니다.

“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자격시험도 이처럼 힘들지는 않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시험이지 선발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시험이라면 천명에 한명을 뽑는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격시험이란 문자 그대로 건축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살피는 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이면 되므로 그렇게 힘든 시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건축사란 과연 이렇게 심한 경쟁을 거쳐야할 정도로 우수한 기술과 해박한 지식이 필요한 직업입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 자격시험도 이처럼 힘들지는 않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시험이지 선발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시험이라면 천명에 한명을 뽑는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격시험이란 문자 그대로 건축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살피는 것으로 족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수준이면 되므로 그렇게 힘든 시험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대학졸업후 5년이 지나면 시험불 자격이 주어지는데, 대체적으로 5대 1의 낮은 경쟁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법이 기본정신으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되도록 막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3병으로 혼나고, 대학을 나와 역시 국민의 의무로 군대를 마치고, 설계사무소에서 5년의 건축설계를 종사하여 이제 겨우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그 시험이 이렇게 하늘의 별따기라니...

나라에 바치는 세금을 비롯하여 모든 의무를 다했고, 이제 평생의 사업으로 설계사무소를 차리겠다는데, 하늘의 별을 따는 힘든 시험의 올라미를 씌워 국민의 희망을 무참히 저버릴 권한이 과연 정부에 있는 것입니까.

시험과목도 역학이나 시공, 구조 등 대부분의 전공과목은 한 4,5년 사이에는 그 이론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터인데도 과목별 합격을 인정치 않는 것은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관의 횡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목은 일단 합격되면 5년쯤은 인정받아 재시험은 면제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건축사시험때 법규책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설계할때는 응당 법규책을 들여다 보니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용(실제는 응당해야 하는데)조차 베풀지 못하고 소아적인 사고방식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물이 썩고 구르지 않는 바위에 이끼가 끼듯이 우리들의 관료의 사고방식, 제도 등은 케케묵었습니다.

이차관님!

힘드때에 무거운 감투를 쓰셨습니다.

소위 감투란 제3공화국때 처럼 관이 해먹기 쉬울때 쓰는 것인데... 하기는 그런 시대에는 이차관같은 문인은 감투 차레가 오지 않았겠지만.

바야흐로 일을 할만한 세월이 되었습니다. 힘껏, 소신껏 경륜을 펴보십시오. 개혁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의 근본 정신은 어디까지나 관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의 정신, 리베랄한 사고방식의 결과 얻어지는 건전한 사고 이어야 하겠습니다.

이차관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즈음, 나또한 우리 가족과 함께 L.A 에 살면서 자주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러 갔었습니다. 백인의 건축과 직원은 매우 친절히 내 도면을 검토하고,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처럼 얼굴을 붉히면서 촌지가 들어있는 흰 봉투를 내미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도 나에게서는 신선하게 느껴져 시청을 찾아가는 것이 결코 싫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그때의 신선했던 감각이 내 마음속에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 싱싱한 것, 그런 것을 담은 사회가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끝으로 이차관님의 건투를 빌면서 이 글을 맺겠습니다. 한가해지면 대포 한잔 나눕시다!